

국제문화전문가 초청 만찬

평소에 존경하는 이 대회를 주관하신 김용태 회장, 로버트 필롱 대표와 각국 문화다양성단체 대표들을 만나게 돼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3회 문화전문가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청와대를 방문해주셔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국은 아주 우수한 문화를 가진 나라입니다.

저는 문화를 보통사람에게 있어서는 공기처럼 느끼는 것이어서 실제 느끼기는 어려우나 한국 사람이 문화를 매우 중요하게 느끼게 해준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많은 한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분이 김구 선생입니다. 그분은 한국의 독립운동을 지도해온 가장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한국이 해방됐을 때 한국이 되고 싶은 나라의 내용을 ‘나의 소망’이란 글 속에 기록해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라는 나라는 돈과 국방력은 그저 먹고 살고 남에게 뺏기지 않고 지킬 수 있는 수준이면 더 많은 욕심을 부리고 싶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화적 자산에 관한한 한없이 가지고 싶고 세계에서 가장 많이 가지고 싶다는 소망을 말했습니다. 김구 선생의 이 말씀은 한국의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자주 인용하고 정치적 야망을 가진 한국의 많은 정치인들도 많이 인용하는

말이 됐습니다. 저도 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멋진 대통령으로 보이려면 문화에 대해 아는 척을 많이 해야 하고 관심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김구 선생의 꿈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경제적으로도 물론이지만 문화적으로 대단히 우수한 문화를 가진 나라에 둘러싸여 수천 년을 지내왔습니다. 수백 번의 이웃나라로부터 무력적 침공을 받고 지배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은 문화적 정체성과 고유의 문화를 갖고 그 위에서 새로운 다양한 문화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웃나라는 물론 전 세계와 활발한 문화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한 때는 화려하고 앞선 문화의 나라와 교류를 하면 정체성과 다양성이 훼손되고 외국문화에 동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했고 한 때 문화의 장벽을 쌓기도 했습니다.

상호교류, 개방되지 않는 문화는 쇠퇴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활발한 교류 속에서 이웃나라는 물론 외국에도 문화적 특수성과 다양성을 가지고 교류하고 그 과정에서 더욱더 우리 문화가 발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저는 각국 여러 민족이 정체성과 다양성을 유지해 따로 따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여러분 모임의 주장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상호 교류·개방되지 않는 문화는 점차 쇠퇴하고 소멸해온 것이 역사적 경험이기 때문에 적절히 바뀐 문화와 교류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한국의 생태학자는 한국에 서식하는 수달의 서식지가 고립되고 교류하지 못해서 종의 다양성이 유지되지 못하고 종이 쇠퇴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듯이 문화에서도 이런 우려가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문화적 교류를 통해서 경제력이 약한 일방적으로 종속·동화·흡수될 수 있다는 우려에 공감

요즘 와서 문화가 경제적 생산력과 결합해 문화적 교류를 통해서 경제력이 약한 일방적으로 종속·동화·흡수될 수 있다는 여러분의 우려에 공감하고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에서 많은 부분에서 이 같은 잠재적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극복하고 위해 모두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 같은 노력과 지난날의 경험이 여러분에게 작은 참고가 되고 판단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국방문이 유익하고 즐거운 방문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준비한 작은 공연 즐겁게 보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